

“지계 보살행 닦아 부처 이루오리”

조계종 '대승보살 52계위 포살법'

조계종 포교원은 (대승보살 52계위 포살법)의 발간과 배포를 통해 기독교를 수형불교로 전환함과 함께 포살법회의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대승보살 52계위 포살법)으로 포살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신도들이 보살의 신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존의 (법광경) 중심의 포살계본과 포살법회 순서 등에서 상이한 점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승보살 52계위 포살법'에 나타난 52계위와 포살법회란 무엇인지 알아본다.

포살 법회시가 주장자를 들어 선상을 세 번 친 후, 다음과 같이 문답한다.

1. 불자야! 지금으로부터 미래제(未來際)의 몸이 다할 때까지 항상 청정한 믿음으로써, 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며 즐거움과 서원을 성취하는 보살의 마음(信心)을 지니겠느냐?
 2. '예' '아니오' (이하 답은 '하겠습니까' '지키겠습니까' 등으로 같음)
 3. 항상 부처님을 생각(念佛)하고 가르침을 생각(念法)하고 교단에 화합(念僧)하며 계를 수지하고 항상 보시를 행하며 선업을 수행하는 보살의 마음(念心)을 지니겠느냐?
 4. 끊임없는 노력으로 선업을 수행하는 보살의 마음(精進心)을 지니겠느냐?
 5. 마음으로 하여금 집착을 놓아버리게 하며 네 마음으로 고요히 안주하는 보살의 마음(安心)을 지니겠느냐?
 6. 일체만상의 본성이 공적함을 깨달아 공의 이치를 아는 보살의 경지(慧心)에 이르렀느냐?
 7. 계를 잘 받들어 지켜 6근의 행이 청정하도록 행하는 보살의 마음(戒心)을 지니며, 만약 계를 범하게 될 경우 참회하는 보살의 마음을 지니겠느냐?
 8. 일체 선근 선업의 공덕을 일체중생들에게 베풀어 되돌리는 보리의 마음(回向心)을 지니겠느냐?
 9.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려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보살의 마음(護法心)을 지니겠느냐?
 10. 항상 불법에 의해 행하며 법을 위하여 네 몸과 재산은 물론 생명까지도 능히 기쁘게 베풀 수 있는 보살의 마음(捨心)을 지니겠느냐?
 11. 중생의 처지에 따라 사후서원의 행원(行願)을 하는 보살의 마음(願心)을 지니겠느냐?
- 십선위의 마음으로 발심한 공덕은 거히 다 측량할 수 없나니, 만약 부처가 되

고지 하는 이는 이와 같이 먼저 10가지 믿음(十信)의 마음을 내야 한다.

11. 여래의 광대한 불법에 의지하여 일체지를 구하고 보리심을 발하는 발심주(發心住)를 닦겠느냐?
 12. 항상 삼신이 청정하고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서 이익심 대비심 연민심 안락심 도사심(樂助心) 등으로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는 처지주(治地住)를 닦겠느냐?
 13. 일체만법의 진여실상을 증득하여 스스로 해법을 밝히는 수행주(修行住)를 닦겠느냐?
 14.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맑은 마음의 깊은 믿음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삼세의 일체법을 수행하며 사방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경등함을 요달하여, 동체대비심을 내는 생귀주(生歸住)를 닦겠느냐?
 15. 모든 선근을 닦아 일체중생들로 하여금 요익되게, 안락하게 하며, 또한 중생들로 하여금 정심(淨心)을 발하게 하여 여금 무상의 계령에 머물게 하고 요익되게 하는 요익주(饒益住)를 닦겠느냐?
 16. 비록 타인으로부터 부처님에 대해 칭찬의 말을 듣거나 비방의 소리를 들어도 그 마음이 고요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이 정직함에 안주하는 정심주(正心住)를 닦겠느냐?
 17. 항상 마음이 고요하여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불법에 안주하는 불퇴전의 보살 마음(不退心)을 닦겠느냐?
 18. 삼업이 청정하여 한 티끌의 오염도 없고 순수하며, 중생계와 현상계에 대해 일체의 집착이 끊어진 청정한 보살의 마음인 등진주(等進住)를 닦겠느냐?
 19. 삼세지(三世智) 불법지(佛法智) 법계무애지(法界無礙智) 법계무번지(法界無邊智) 등을 증득하는 관정주(灌頂住)를 닦겠느냐?
- 십선위의 행과 덕을 닦으면 그 공덕이 참다운 법과 마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

52계위 포살법회 순서

1. 정단청사(淨壇請師): 법단을 깨끗이 하고 참회사(아사리)를 청함.
2. 예경삼보(禮敬三寶): 삼보님께 공경 예배함.
3. 향화공양(香花供養): 향과 꽃으로써 공양함.
4. 명칭성법(明稱聖法): 성스러운 법을 드러내어 칭함.
5. 청사참회(請師懺悔): 참회사(아사리)를 청하여 참회함.
6. 교발대인(教發大願): 대서원을 발심하도록 가르침. 여기서 52계위를 문답함.
7. 계백작중(誦白作證): 재발보살계 증명여 주시길 고함.
8. 대회향(大回向): 일체 중생에게 포살의 공덕을 회향함.

을 뿐만 아니라 초현위(初賢位)의 문에 들어가게 되나니라.

21. 재시 법시 무에서 등의 대서주자가 되어 중생을 위하여 집착함이 없이 능히 회사를 행하며 명리를 구하지 않고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심과 존경심을 발하게 하는 환희행(歡喜行)을 하겠느냐?
22. 청정 계령으로 오욕에 물들지 않고 능히 마구니들을 조복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무상의 계령에 머물게 하고 요익되게 하는 요익행(饒益行)을 하겠느냐?
23. 인욕을 닦아서 경이한 마음과 사란

스런 말로써 타인을 해치지 않고, 원수에 대해서도 능히 덕으로써 인욕할 수 있는 무애행(無礙行)을 하겠느냐?

24.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구법도생(求法度生)의 서원을 끊임없이 행하는 무진행(無盡行)을 하겠느냐?
25. 항상 정념에 머물러 산란함이 없고 세출세간(世出世間)의 모든 법과 생사에 대해서도 일체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이치관행(離難觀行)을 하겠느냐?
26. 일체 유위법의 실상을 이해하고 깨달아 번뇌심을 여의고 삼업이 적멸해서 속박과 집착을 일으키지 않고 또한 일체 중생의 제도도 버리지 않는 선행행(善行行)을 하겠느냐?
27.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법을 구하고 중생들의 불행이 원을 끊어주지 않고 법을 널리 행하는 무학행(無學行)을 하겠느냐?
28. 알기 어려운 선근, 지혜 등의 법을 존중해서 모두 다 성취하고 자타이행(自他和行)을 행하는 존중행(尊重行)을 하겠느냐?
29. 사무애(事無礙) 다라니문 등의 선



◆ 출가승의 포살법회는 보름마다 한번씩 행해지는 것이 관례다. 조계종은 신도포살법회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조계종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소임자스님의 포살법회.

법(善法)을 얻어, 갖가지의 방편법으로 중생들을 요익하게 하고 능히 중생들의 감로수가 되어 중생들로 하여금 불법의 대도에 즐거워 하고 정법을 수호하며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는 선법행(善法行)을 하겠느냐?

30. 삼세제물의 진실어(眞實語)를 배워 언행이 일치하고 말과 행이 부합하며 순리에 삼입이 순응하는 진실행(眞實行)을 하겠느냐?
31. 심행위의 행과 덕의 무량한 공덕은 중현위(中賢位)에 들어가는 문이니라.
32. 육도사상등으로 대비경중심을 증생 구호의 근본자세로 하고 일체중생을 심수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고를 여의고 열반향을 인도해 중생을 구호(救護回向)하는 보살행을 하겠느냐?
33. 삼보에 대해 깊고 견고하고 파괴되지 않는 믿음을 얻어 이 선근을 중생들에게 돌려 선법의 이익을 얻게하는 불괴 회향(不壞回向) 보살행을 하겠느냐?
34. 삼세제물의 경지를 배워 삼과 죽음을 집착하지 않고 또한, 불행 여의지 않으며 삼세제물의 비심(悲心)과 지혜를 구축하여 중생들에게 회향(回向) 하겠느냐?
35. 닦은 바의 모든 선근공덕을 시방일체 삼보전에 공양 올리고 일체 세간의 중생전에 모든 이익이 되게 회향(回向) 하겠느냐?
36. 일체 선근에 대한 파오를 참회하고 일체 선근에 따르는 마진을 멀리하며 모든 여래와 일체중생들의 선근을 모두 알고 기꺼이 따르며 이 선근 공덕을 모두 회향하여, 항상 일체 제물의 청정국토에 장엄과 불사를 하고, 일체 모든 말법을

여의고 무소유를 신념으로 무진공덕을 회향(無盡功德回向) 하겠느냐?

37. 안으로는 목숨과 밖으로는 자신의 의식까지도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아낌없는 대비심으로 모든 공덕을 회향(隨順一切苦難悲愍回向)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대지혜를 얻고 괴로움을 여의도록 하겠느냐?
38. 일체 모든 선근을 증장(增長)하고 일체 선근을 모두 닦아 모든 악취문(惡趣門)을 막고 모든 장애가 있어서 집착하지 않으며,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일체 선근 공덕을 모두 회향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선근을 얻게(善心隨順一切眾生回向) 하겠느냐?
39. 정혜를 성취하여 부동심에 안주하고 마음이 어느 대상에 의지하는 바가 없고 항상 한결 같이 일체중생들에게 위배 없이 이 국토를 장엄하고 닦은 바의 모든 선근을 진여경등무차별상에 따라서 중생을 제도(眞如回向) 하겠느냐?
40. 모든 탐착(貪著)을 여의고 해탈심을 얻음으로써 보현행을 행하고, 또한 일체법에 집착함도 없고 구속함도 없는 해탈심으로써 모든 중생들을 요익하게 회향(無貪無著無執無礙回向) 하겠느냐?
41. 더러움의 일체 번뇌를 다 없애고 요한 마음의 빛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한 대법사로서 동불수기를 받고 중생들에게 법보시를 베풀며 세간을 청정하게 장엄하고 회향함이 법계(法界無量回向)에 미치게 하겠느냐?
42. 심회향위의 행과 덕의 무량한 공덕은 상현위(上賢位)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얻어 성지위(聖地位)에 들어갈 수 있나니라.
43. 승려(僧)의 분별지와 진제(眞諦)의 무분별지를 동시에 구축하여 진속(眞俗)의 지(智)가 서로 상응하며, 또한 일사에 나타나기도 하는 자재의 지혜를 얻은 선경바라밀다를 성취한 제5지 보살위인 난승지(難勝地)를 행하겠느냐?
44. 12인연의 깊은 도리를 통달하고 무분별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해(慧)의 계위로 나아바라밀다를 성취한 제6지 보살위인 현진지(現進地)를 행하겠느냐?
45. 무차별의 평등 무상관에 의해 상이 없는 구경의 도를 성취하고 방편바라밀다를 성취한 제7지 보살위인 원행지(遊行地)를 행하겠느냐?
46. 무분별지로서 끊임없이 깊고 심원한 청정과 심행(深行)을 하며 불어법에 안주하며 완비바라밀다를 성취한 제8지 보살위인 부동지(不動地)를 행하겠느냐?
47. 승요지혜(勝妙智慧)를 증득하고 미묘한 사무애해(事無礙解)를 성취하고 대법사로서 사방에 두루 무량성교방편(無量善巧方便)의 실법을 하며 완비바라밀다를 성취한 제9지 보살위인 선혜지(善慧地)를 행하겠느냐?
48.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증득하여 실로 육계 색계 무색계 중생계 허공계 열반계 등을 모두 알며, 또한 불사의해탈(如來藏解脫), 법계장해탈(法界藏解脫), 통달삼세해탈(通達三世解脫) 등을 지혜 지를 모두 통달하여 지바라밀다를 성취한 제10지 보살위인 법운지(法雲地)를 행하겠느냐?
49. 십선위의 행과 덕의 한량없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지를 얻어 십성위(十聖位)에 오르며 3지 이상의 성위는 6축성의 천주(天主) 혹은 천왕(天王)이 되나니라.
50. 우주만법 진리를 모두 깨달아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과 같은 깨달음을 얻도록(等覺位) 행하겠느냐?
51. 등각위의 행과 덕의 한량없는 공덕은 대보리를 증득(證得)하여 일생보처보살(一生補處菩薩)이 되나니라.
52.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무상정 등정 각(妙覺位)을 얻도록 행하겠느냐?
53. 요각위의 행과 덕의 무량한 공덕은 불중(佛種)을 얻어 불과위(佛果位)에 들어가는 문(門)이니라.

기복 탈피 자력수행으로 가는 나침반 십신·십행등 佛果位에 이르는길 제시

포살이란 대중원에서 잘못 참회하는 의식

포살이란 교단 구성원의 생활이 실재로 계율에 입각하여 바르게 행해져서 청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한곳에 모여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죄가 있으면 고백- 참회하는 행사이다.

포살법회는 출가승에게는 보름마다 한번씩 즉 매월 15일과 30일(혹은 29일)에 행해지는 것이 관례이다. 이와는 달리 재가신도의 포살은 한 달에

6일 동안 만이라도 8차례를 지키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포살하는 방법은 동일 지역 내의 스님들이 포살당이나 혹은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계율을 잘 아는 스님을 청하여 비라제파차 즉 계본(戒本)을 설하게 하고, 만약 스님 중에서 지난 보름간에 계율로 정해진 것을 범한 이가 있으면 대중 앞에서 고백한 후에 참회하는 것이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인하 하였습니다.

가격 인하 단행!!

- 외관 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인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문의 하실 곳 : (0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줄잡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 제작이 간편한 등
 -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장으로 풀말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풍족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야외장엄용
 -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입 전부터 사찰의 축제문화기질'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 '운반 및 보관이 편리, 하도록 고안'
- ★ 경제적인 가격
 -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풀조 및 인쇄되지 않지 방식)

◆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價格에도 佛心을 담고 싶습니다

이제는 가격 때문에 망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에도 佛心을 담아 불국정토를 이루고, 잠엄 의식구에 혼을 담아 스님과의 인연을 이루어주는 일— 저희 예성 불미원이 侍應에 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종합 불사조성회사인 예성 불미원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예성불교조성회사 藝聖佛美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文培洞 17-1 신화빌딩 3층 TEL:(02)704-5070(代) 704-8850

영업종목: 고건축·대불·목불·동불·특수불·석불·탱화·개금·만경·법당내부·사찰 홍보기획 및 출판대행